



베이징올림픽 D-150

광주·전남 메달 기대주

배드민턴 남북 금·은 확보

전꽃오픈 여자복식도 中 꺾고 결승 진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5개월여 앞두고 한국 배드민턴이 확연하게 되살아났다.

전통적으로 남자복식에 강한 한국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도 김동문-하태권 조와 이동수-유용성 조가 결승에서 맞붙기도 했지만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영오픈에서 우승을 다투게 된 것은 처음이다.

세계랭킹 6위인 정재성-이용대 조는 세계랭킹 4위인 말레이시아의 송탄푹-리완와 조를 맞아 1세트를 21-13으로 가볍게 따냈지만 2세트는 듀스 접전 끝에 22-24로 내렸다. 마지막 3세트에서는 16-20으로 몰려 패색이 짙었으나 4점을 내리 따내 듀스를 만들었다.

이 짝꿍은 심판의 편과 판정이 나와 정-이 조가 강력하게 항의하다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다시 3점을 몰아쳐 23-21로 짜릿한 뒤집기를 연출했다.

세계랭킹 11위인 이재진-황지만 조는 16위인 일본의 이케다-사카모토 조를 2-0으로 가볍게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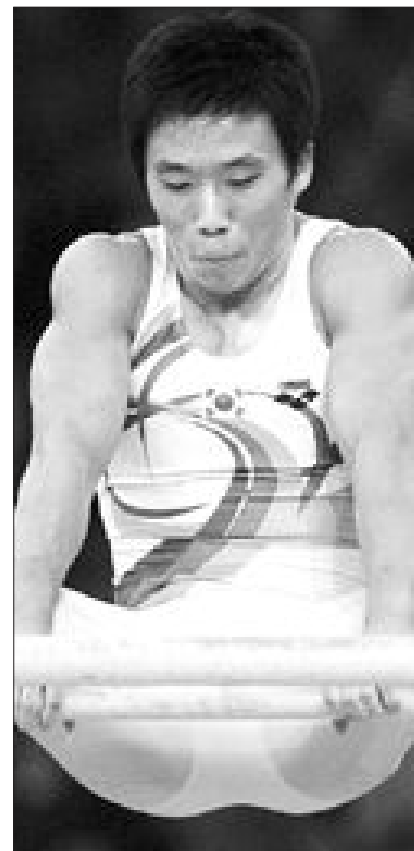
여자복식에서는 랭킹 4위인 이경원-이효정(이상 삼성전기) 랭킹 3위인 중국의 양웨이-장지젠 조에 2-1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 여자복식은 전영오픈 결승에 오른 것은 우승을 차지했던 1999년 리경민-정재희 조 이후 처음이다. 여자단식에서 11년만에 전영오픈 4강에 올라 관심을 모았던 황혜연(세계랭킹 32위·삼성전기)은 덴마크의 팀 라스무센(세계랭킹 9위)에게 0-2로 아쉽게 패했다.



김찬미 (사격·광주)



이특영 (양궁·광주)



김대은 (체조·전남)

“오직 ‘금’...우리에게 2위는 없다”

오는 8월 8일 개막하는 지구인의 큰 잔치 제29회 베이징올림픽에서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메달 획득 가능성이 가장 큰 기대주는 지난해 광주 전남여고를 졸업하고 성인 무대에 입문한 김찬미(19·기업은행).

지난 2007년 사격계가 발굴한 ‘보물’로 여겨지는 김찬미는 지난해 4개대회 연속 우승을 일구며 차세대 기대주로 각광받아왔으며 베이징 올림픽 여자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이 유력시되고 있다.

광주제과 출신 이특영(광주시청)이 여자 양궁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물론 이들은 오는 4~5월 마지막 관문인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을 남겨 뒀지만 각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태극마크를 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에도 광주출신으로 육상에서 조선대 출신 박태경이 110m 허들, 김덕현(광주시청)이 세단뛰기에서 각각 메달에 도전한다. 전남여고를 졸업한 이보나(우리은행)는 사격 더블트랩에서 메달을 노린다. 광주 문성고를 나온 우수의 장용호

육상 박태경·김덕현

태권도 윤희성·김주영

메달권 진입 큰 기대

(광주시 체육회)는 비록 이번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이지만 태극관에서 메달을 향한 집념의 연기를 펼친다.

전남출신으로는 배드민턴 화순실고 출신 이용대(삼성전기·국가대표 확장), 무안 백제고를 졸업한 핸드볼 김은하(백산건설·), 체조에서 영광고 출신 김대은(전남도청)과 김승일(·), 태권도에서는 윤희성(용인대·영광출신)과 김주영(조선대·해남출신)이 각각 베이징에서 태극기를 휘날릴 스타들로 꼽힌다.

이특영은 지난 2007 중국베이징프리레올림픽 단체1위, 제44회 세계양궁선수권 단체1위를 기록한 세계적인 공사로 김주영과 대담성이 뛰어난 국가대표 최종선발전만 통과하면 메달권이 확실해 보인다.

박태경과 김덕현은 아직 대표로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국내에서는 적수를 찾아보기 힘들고 아시아권에서도 1~2위를 다투고 있어 베이징올림픽에서 육상종목 사상 첫 메달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김덕현은 기록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 기량이 당장에 올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당일 컨디션에 따라 메달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조의 김대은은 2004 아테네올림픽 개인종합 은, 2007 세계체조선수권 평행봉 금메달을 획득해 이번 대회에서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을 한을 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대는 초·중·고시절부터 ‘제2의 박주봉’이라는 찬사를 받아와 주 종목인 혼합복식과 남자복식 주 종목 중에서 1개 이상의 금메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범종목이기는 하지만 우수의 장용호는 지난 2005년 제8회 세계우수선수권대회 태극관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실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주회국 중국의 텃세가 메달 색깔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블로킹을 뚫고

9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LG손해보험의 경기에서 현대 박철우가 LG 김요한과 방신통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하고 있다. 현대가 3-0으로 완승했다. /연합뉴스

韓·中·日 핸드볼협회

독자적 대륙 연맹 추진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핸드볼협회가 공동 세력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아시아핸드볼연맹(AHF)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인 대륙연맹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정형균 대한핸드볼협회 상임부회장은 “지난 7일 여자 4개국 초청대회가 열린 중국 베이징에서 3개국 핸드볼협회 대표자들이 모여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3개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AHF를 동서로 분리해 독자적인 대륙연맹을 구성하는 것.

AHF가 이를 거부할 경우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예선을 동서로 분리해 치르는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도저도 안 될 경우에는 3개국 모두 AHF에서 탈퇴하고 오세아니아연맹으로 편입하는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뜻을 모았다고 정형균 부회장은 전했다.

3개국 핸드볼협회는 다음달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올림픽선수권대회에서 마카오, 홍콩, 몽골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 협회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10일(월)

▲2008 PGA PODS 챔피언십 FR(04:00·SBS스포츠·SBS 골프)

▲07/08 스페인 프리메이 리가(바르셀로나: 비아레알)(05:00·KBS N SPORTS)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최종예선(대한민국: 스페인)(13:25·MBC)

▲07/08 여자프로농구 2차전(금호생명: 삼성생명)(18:50·SBS스포츠)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목포서 열린다

7월26일부터 4일간

요트 등 22개 종목

목포시에서 열리는 제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일정이 확정됐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9일 제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7월 26부터 4일간 목포야마다 등에서 요트, 비치발리볼 등 22개 종목을 추진키로 최종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목포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올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평화관광, 유달 유원지, 외달도 등 목포야마다 일원에서 요트, 핀수영, 비치발리볼,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5개 정식종목과 수상오토바이, 드래곤보트 등 4

개 번외종목, 그리고 고무카약, 래프팅, 갯벌체험 등 13개 체험종목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진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이번 제3회 전국 4만여 선수와 임원, 관광객 등 해양스포츠 마니아가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 70여억원을 들여 삼학도 인근에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경기장시설 개보수와 숙박을 비롯한 관광편의시설 정비 등 본격 준비에 나섰다.

전국해양스포츠 제전은 해양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와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북 울진(1회), 강원 삼척(2회)에 이어 올해 제3회 대회를 목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목포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올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평화관광, 유달 유원지, 외달도 등 목포야마다 일원에서 요트, 핀수영, 비치발리볼,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5개 정식종목과 수상오토바이, 드래곤보트 등 4

/최희호기자 chae@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061)223-1140, 5210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61)972-4585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대주거지역 1000평 대세대주백, 물류창고, 복지실바사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061)833-6669
점심. 완도개인독선
별장.농장등.
다용도개발가능
한필지6천200평 (마을앞)
평당/20만원. (교환가능)

금보부동산컨설팅
(061)281-8949
▶토지매매
▶건물매매
▶상가건물/모텔
▶주택
▶부동산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원)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할 암시가는 사람- (주)육선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원) 상담전화: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육선코리아 무료상담